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체육교
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전 표 명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체육교
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

지도교수 권혁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전 표 명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4
가. 자연주의의 개념	4
나. 루소의 생애	6
다. 루소의 교육사상	9
라. 루소의 체육사상	13
2. 체육교과 교육과정	17
가. 개념	17
나. 교육목적	19
다. 교육내용	20
3. 체육교과 교육방법	21
가. 개념	21
나. 교육방법 유형	23
4. 선행연구검토	24

III. 체육교과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

1. 교육목적	28
가.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 육성	29
나. 건강한 신체 육성	32
다. 민주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육성	34
2. 교육내용	36
가. 경험중심 교육과정 편성	36
나.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39

IV. 체육교과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

1. 교육방법	42
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42
나. 자발적 탐구 활동 지향	46
다.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 제공	49

V. 결 론

참고문헌	56
----------------	----

The influence of Rousseau's Naturalism Educational Thoughts on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pedagogical Method

Pyo Myoung Ju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 J. Rousseau's Naturalistic educational thoughts on the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the purpose and contents of the education) and education method through his books and thesis. The following are summed up the significance of his educational thought on physical education.

1. The Purpose of Education

Rousseau's educational thoughts have influenced on the purpose of education today that a harmony of body and mind, a health-related body and a contributive to the democracy in human being.

In the first, It emphasized the distinction on the harmony of body and mind that is made of the mind activity according to the physical activities.

In the second, I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body development that health-related body was one of the very important factor and the foundation of the will and knowledge to develop.

In the third, It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have to make the moralist who has a sportsmanship.

2. The Contents of Education

Rousseau's Naturalistic education has influenced to organize the moderate educational curriculum in a experience education, a growth-development and a knowledge level.

In the first, It is emphasized the acquisition of desirable idea that the knowledge is acquired by the material experienc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sense in the recognition.

In the second, It is emphasized that human can bring about the potentiality to compose a moderate environment and individual development level.

3. The Method of Education

Rousseau's Naturalistic education is very important to the method of education today that is composed of the induction of a voluntary participation in learners, the intention of a voluntary research activity, and a lot of the experiences and plays.

In the first, The point of Rousseau's a passive education theory is lead to typical education the voluntary attendance that is not the outside stimulus but is based on children's original nature.

In the second, It's emphasized the study of discovery that is using a voluntary activity by a beneficial knowledge.

In the third, According to Rousseau, the material experience can be related between children and material, and children develop the motor sense ability using the sense organs with the material. Also It is emphasized that the education of children consists of a play in any forms of the physical activiti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아동의 천성을 자연 그대로 발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천성은 본래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난다고 했다. 그의 저서 「에밀」의 첫 머리에서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사람의 손에 옮겨지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만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선한 천성을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김동규, 1999).

한편 루소는 어린 아이의 천성은 착하므로 아이의 욕구를 살리면서 지성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그들 자신이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의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연의 범주 안에서 인간과 교육, 체육활동 혹은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으며, 특히 그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 자신의 본성, 자력 및 그들 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이었다(이정학, 2005).

루소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부딪치는 갈등, 즉 인간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인위적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간의 갈등 및 이중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였다.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그 본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추어 기존의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즉, 루소는 전통적인 학과목을 부정하고 자연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가 사회적 · 신체적 · 지적 발달에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에 적합한 자연주의적 학습과정을 제시하여 아동

이 자유성향에 따라 발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행할 것을 그의 명저인 ‘에밀’에서 주장하고 있다(김동규, 1999).

위의 논지를 종합해보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은 아동에 대한 인위적인 환경과 훈련을 비판하고 아동의 자발성을 억압한다던지 아동을 인형과 같이 다루는 모든 인위적인 것을 반대한다. 즉, 아동의 교육은 인간 본연의 법칙 다시 말해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체육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체육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학습에 필요한 조건에 맞추어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윤명희, 1998).

교육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내고자하는 지향점이며, 교육내용은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교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목적은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평가에도 기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학습대상의 발달단계에 맞게 설정되며, 실제학습이 가능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교과의 교육목적은 교과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 움직임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전인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스포츠 종목과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개념은 의도한 교육과정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학생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업을 중시한다. 즉 학생의 흥미, 능력, 선호 등의 개인차를 중시하는 교육방법이 현장에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은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가 일정한 교육관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러

한 과정 중 성공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어떠한 이념과 원칙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느냐하는 것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육 본연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에서 체육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근대 교육의 이론적 배경이 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체육교과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었다.

이 방면의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루소의 저서 <에밀>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첫째, 루소의 교육사상과 체육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체육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한 연구. 둘째, 루소의 신체관과 신체형성론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구. 셋째, 그의 교육철학속에 나타난 체육사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 넷째, 그의 교육철학을 분석하여 인간관과 신체관을 밝히고 그것이 현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룬 선행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현대의 체육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루소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육교과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체육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방법으로 하였다. 오늘날의 체육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법칙이나 원리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 체육교과교육 관련서적 및 제7차 체육교육과정 해설서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이러한 법칙이나 원리에 영향을 미친 근거는 루소의 「에밀」과 이와 관련된 서적 및 논문 등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가. 자연주의의 개념

자연주의(naturalism)는 라틴어 ‘natura’에서 나온 말로서, 이는 원래 타고 나온 것을 존중하자는 것으로, 이러한 자연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으며, 이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충칭한다. 이는 철학적으로는 그 이름이 시사하는 대로 자연을 유일한 실재로 여기는 철학이며, 이러 면에서 반자연주의인 이상주의와 대립한다. 자연주의에 의하면, 물질적 우주가 실재의 전부이며, 따라서 정신적인 존재나 영혼적인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김정환외, 1998).

자연주의에서 의미하는 ‘자연’의 정의는 학자마다 경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산천초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지(意志)의 주체(主體)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가 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의미로서의 인간의 자연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루소는 내면적인 감정이라든가 양심·영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루소가 말하는 이와 같은 ‘자연’이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기심(利己心) 또는 갖가지 정념(情念)에 의해서 유도되는 자의(恣意)를 초월한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말한다(정봉구, 1995).

한편, 유럽의 17, 18세기 사상체계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응과 그 이후 나타난 계몽주의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자연주의 사상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파생된 것으로 계몽주의의 출현 배경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주의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계몽주의의 관점은 ① 권리에 대한 저항 ② 합리주의 ③ 계몽운동 ④ 문화낙관주의 ⑤ 자연으로 돌아가라 ⑥ 인본주의적 기독교 사상 ⑦ 인간의 권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주의(naturalism) 교육사상은 18세기의 계몽사상이 지나치게 이성
과 합리성만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의 존엄과 감성이 경시됨에 따라 나
타난 사조였다. 그렇다고 자연주의가 계몽사상의 반대편에 위치한 것은
아니었고, 계몽사상의 기본성격을 더욱 보완·개선하기 위한 측면에 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의 루소에 이르러 절정을 이
룬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계몽적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일찍이 17세기의 라트케, 베이컨, 코메니우스의 교
육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18세기의 루소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었
고, 나중에는 바세도우(Basedow, J. B., 1723~1790), 잘츠만
(Salzmann, C. G., 1744~1811)과 같은 범애주의자들의 교육원리에 응
용되었다. 그리고 페스탈로치(Pestalozzi, J. H.) 교육사상의 핵심을 이루
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교육사상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다(노희덕, 1999).

자연주의적 교육철학을 보기에 앞서 자연주의의 기본적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존재는 인과율의 법
칙 아래에 있다. 둘째, 자연 이외에는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없다. 셋째,
자연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 넷째, 인간성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것
의 하나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가장
올바르게 얻어진다(김정환외, 1998).

더불어 18세기에 ‘모든 것을 자연에 따라서’라는 표현에 자신의 목적
을 잘 드러낸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대표적 특징을 나열해 보면 첫째, 자
연주의 교육은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으로서 이는 교육과정을 자연법칙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연주의 교육은 교육방법을 자연법
칙에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는 훗날의 계발주의자들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자연주의 교육은 모든 인위적인 것에 반대하여 자연에 돌아
가게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자연주의자들은 아동에 대한 인위
적인 환경과 훈련을 비판하고, 아동의 자연스러운 자발성을 억압한다든지
아동을 인형과 같이 다루는 모든 인위적인 것을 반대한다. 특히 마지막
사항이 중요한데, 루소는 당시 프랑스 교육의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하였

다. 루소는 당시의 아동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지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며 성인과 같은 규범으로 생활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단련주의 교육 속에서 귀족의 자녀들은 마치 사교계의 신사와 숙녀를 모방해서 행동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풍토에서 기억과 암기가 학생의 유일한 학습활동이었으며, 암기를 검사하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였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에 대한 투쟁의 외침이었다(노희덕, 1999).

한편, 김동규(1999)는 자연주의 교육의 의의와 허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의의**

첫째, 교육자들에게 아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교육의 과학화에 이바지하였다.

둘째, 어린이의 자연적 성장 유형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이 대두되었다.

셋째, 경험을 통한 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학습에 있어서의 흥미를 중시하였다.

***허점**

첫째,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피교육자의 자유는 향상시켰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와 훈련조차 그르칠 우려가 있다.

둘째,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한계, 즉 앎을 경험에만 축소시키는 것은 윤리적, 심미적 가치와 형이상학적 영역에 관한 많은 앎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셋째, 교육의 영원한 목표가 없다.

나. 루소의 생애

프랑스의 소설가·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진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171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10세 때에 방탕하고 우매한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루소는 숙부에게 맡겨져 어느 동판 조각사의 심부름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내야 했고, 결국 16세 때에는 제네바를 뛰쳐나와 청년기를 방랑생활로 보냈다(권응호 역, 1997).

뿐만 아니라 소년시대에 일찍 겪은 불행이 루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겨놓은 것은 그의 고백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태어났고 나의 출생은 나의 여러 불행 가운데 최초의 불행이었다”고 술회한 루소는 자신의 생명을 어머니의 죽음과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회한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김상순 외, 1999).

이러한 루소의 삶에도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바랑부인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바랑 부인과의 만남은 루소에게 그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모성에 대한 사랑과 그 이상을 넘어 이성애에 대한 사랑으로 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랑 부인의 도움으로 학문에 몰두하여 후에 저술하게 되는 수많은 저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742년 파리에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친교를 맺게 되면서, 그는 디드로 등에 의해 간행중에 있던 <백과전서>에 협력하게 된다. 1749년에는 디종의 아카데미 현상논문인 ‘과학과 기예의 진보가 도덕의 부패에 공헌하였는가, 개선에 공헌하였는가?’라는 논제를 보고 하나의 영감에 사로잡히는데, 곧 그 논문에 응모하여 당선되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됨으로써 그에게는 사상가로서의 계기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저작에만 전념해, <불평등 기원론>, <정치 경제론>, <언어 기원론>, <신 엘로이즈>, <사회계약론> 등을 발표하였고, 소설 형식의 교육론인 <에밀>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에밀>은 출판되자마자 파리학부에 의해 제소당하는 파란을 겪어야만 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루소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체포령을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파리를 떠나 스위스·영국·프랑스 각지를 돌아다니며 방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 쓴 것이 자전적 작품인 <고백론>이다(권응호, 1997).

1768년 테레즈 르 바쇠르와 결혼하고 1770년 다시 파리로 돌아온 루소는 심한 피해망상 속에서 자기변호를 위한 작품 <루소, 장 자크를 재판하다>를 썼고, 계속해서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의 집필에 들어갔으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778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권응호, 1997).

특히, 루소의 많은 저서 중에서 ‘사회계약론’은 그의 사후 10년 뒤에 일어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근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많은 민중을 자유·평등·박애의 길로 이끈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에밀’과 ‘사회계약론’은 거의 동시에 쓰여 졌으면서도 서로 다른 차원에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에밀’의 주내용은 사회계약에 의한 이상적인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가 된다(김상순 외, 1999). 또한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사상은 자연성을 중시하는 본질적인 인간성 회복과 근대 문명의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루소는 ‘에밀’의 첫 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신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망쳐서 악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한 땅에서 다른 곡식을 거두려 들고, 한 나무에서 다른 과일을 따려고 든다. 인간은 때와 곳과 자연적 조건을 혼돈하고 흐트러 버린다.” 또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첫 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이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에밀’의 선언이 인간의 본연선의 주장이라면 ‘사회계약론’의 선언은 인간 자유의 주장이다. 인간(어린이)을 존중하자, 인간(어린이)을 그릇된 사회체제로부터 해방시키자 — 이 두 생각위에 루소의 교육론은 짜여져 있다(김정환 외, 1998).

루소는 서구 사상적 입장에서 볼 때 깊은 변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주의적 정치체제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거부하고, 종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반자연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부정하였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근원이 되었고, 민주주의 사상을 잉태시켰으며, 산업사회와 대중사회의 발

전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볼 때 루소는 새로운 사회의 대변자이며 구시대의 비판자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혁명과 대전환의 사상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오, 2004).

다. 루소의 교육사상

루소가 생존했던 18세기의 교육적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교육은 주로 기존사회의 안정적 영속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그리스와 라틴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교육방법도 전통적인 주입식 방식에 의존하였다. 전통적 교육방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교육내용을 부과하는 외압적 형태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교육방법의 문제는 학생의 개성이나 흥미, 학습동기 등이 무시된 채 교재와 교수방법을 인위적으로 선택하고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소외현상을 일으키는 등 교육의 부정적 요소만이 발달한다는 것이다(김수동, 1995).

다시 말해 교육은 자연적인 과정이지 인위적인 과정은 아니다. 그것은 안으로부터의 발발이지 밖으로부터의 첨가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득적인 본능이나 흥미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외적인 힘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천부(天賦)의 모든 능력을 전개하는 것이지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 그 자체이자 흥미나 특성인 점에서 아동기의 생활과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아니라는 것이다(김동규, 1999).

“조물주가 처음에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 인간은 어느 한 땅에 다른 땅의 산물을 키우려 하고, 어느 한 나무에 다른 나무의 과실을 맺게 하려고 애쓴다. 인간은 풍토와 생활환경과 계절을 섞어서 뒤죽박죽이 되게 하며 자기의 개와 말과 노예를 불구로 만든다.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구로 만들며, 기형과 괴물을 좋아한다. 인간은 무엇이든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지이다. 사람은 마치 훈련이 잘된 말처럼 자기 기호에 맞게 길들여져야 하고 또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처럼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권용호, 1987).”

위에서 보듯 ‘에밀’의 첫 부분은 루소가 인간 사회의 인위성 및 강제성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하는 대목이다. 즉 그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善)하나 인간의 손(사회체제)에서는 악(惡)으로 변한다면서 인간의 천성을 존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곧 인간은 본래 내재하는 자연의 성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개발해야 하며, 인간의 자연능력의 개발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면서 인간을 자연 그대로 성장시켜 가야한다는 논리이다(이정학, 2005).

루소가 주장하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 즉 성선을 보존하여 도덕적 자유인과 독립적인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참된 인간이 개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소속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개인과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 점에서 루소는 주지적인 교육이 아닌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는 감각위주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교육내용이 아동의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게 편성되어 아동의 능동성과 자발적 탐구활동을 촉진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소의 교육내용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자연의 질서에 맞게 인간을 교육시키는 데에도 인간에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에 맞추어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란 무엇이고 이때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김동규(1999)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이란 곧 인간의 발달단계이며, 동시에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또는 신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각 개인의 발달단계와 그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개인에게 자연법칙으로서의 발달단계와 그 특성을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교사는 인간발달의 법칙을 통찰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발달단계를 거쳐 ‘자연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도움으로 어린이는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여기에 복종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사물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통달하게 된다(김동규, 1999)

이와 같이 루소가 주장한 자연의 법칙에 따른 교육이 인간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의 대표적인 교육저서인 ‘에밀’의 전체적인 구성틀을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에밀’의 내용은 전체 5편으로 짜여져 있다. 1편은 유아기로서 태아부터 5세까지, 2편은 아동기로서 5세부터 12세까지, 3편은 소년기로서 12세부터 15세까지, 4편은 청년기로서 15세부터 20세까지, 5편은 여성교육 및 시민교육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동기에는 신체 및 감각 훈련을, 소년기는 지육을, 청년기는 감정의 교육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정호표(2001)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 단계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교육의 시기이다. 현재의 영유아 교육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에밀이라는 가상의 유아를 선정하고 이 유아의 생활의 모든 조건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 가정교사를 가정했다. 이 동물로서 비유된 시기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에 의해 좋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의 신체적 운동에 전혀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단계는 아동기에 해당된다. 거의 현재의 초등교육단계에 해당한다. 여러 측면에서 아동의 자연적 본성에 의존하는 자연의 교육이 시작된다. 이는 고귀한 야만인에 비유되는 시기로서 감각작용을 통해 외적 현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인위적인 규제를 회피하고 감각적 경험에 국한하도록 권장되었다. 이때 도덕교육은 자연의 결과에 의해 정보를 받도록 자연법에 의지하도록 한다. 아동은 사실을 비교하고 관련지을 능력이 부족하므로 관념의 획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근거나 추론은 불가능한 시기로서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는 데서 도움을 얻게 된

다. 감각에 의해 획득된 사물의 상이 중요하며 이를 사물과 대조함으로써 서서히 사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서적중심의 지식교육은 의의가 없게 되며 독서는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단계는 전 사회적 단계로서 인간관계가 자기중심으로 전개되는 시기이다. 그 자신의 자연적 본성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인위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교육은 소극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셋째 단계는 12세 이후 15세까지의 소년기에 해당된다. 거의 현재의 중학교교육의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신체적 활력과 추진력이 강화되며 정신의 개발이 시작되는 합리적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사고는 여전히 감각적 사실에 관련되나 직접적 감각의 범위를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 경험내의 현상을 비교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스스로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회관계의 기본적 인식이 가능하게 되며 인간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분업 등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각성과 관련되는 사회적 인간상은 데포(Defore)의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상된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 기능적 힘이 필요했다. 크루소의 무인도가 에밀에게는 그가 살아야 할 세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탐색, 과학적 탐구,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등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경험에 의해 체득되는 실용적 지식을 의미한다.

넷째 단계는 15세 이후에서 20세까지의 청년기에 해당된다. 성적인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며 성인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지금까지의 좁은 생활의 범위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는 사회적 시기이다. 동정과 이해심 등이 생기면서 개인적 감정이 사회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점진적 접근이 시도되는 시기임으로 인위적 사회의 악에 감염되어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단계이다.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덕, 종교, 사회교육이 중시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사회교과에 대한 학습이 강조되고 언어와 문학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성적 능력의 배양도 필요한 시기로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입문의 시기에 해당한다.

교육방법 측면에서 자연주의 교육은 언어주의를 탈피한다. 자연주의는 실재의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연주의는 실재를 전체보다 개별체로서 파악한다. 실재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틀을 얻기 위해서 탐구의 대상을 작은 요소로 축소시킨다. 자연주의자들은 즉자적인 경험, 구체적인 사례, 직접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감각적 경험은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활동과 학습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물을 다루고 이로부터 실험을 하게 되며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최덕목, 2004).

이상으로 보아 루소가 생각하고 있던 교육은 인간을 성선설적 입장에서 보고 자연존중의 사상을 강조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적인 자유를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아획득과도 연관되며, 외계로부터가 아닌 자신의 내적으로의 성장을 말한다. 그리고 자연인 · 자유인 · 개인으로 연결되는 인격도야는 특정한 전통적 사회에 의해 제약된 인간이 아닌 순수하고 평등한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업인 · 성인 이전의 아동은 우선 순수 자연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인격도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강조되었다(김동규, 1999).

라. 루소의 체육사상

자연주의 체육사상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체육사상은 실학주의와 단련주의로 루소의 체육사상은 이 두 사상의 정신적 자양분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사상은 자연주의 체육사상의 목적과 내용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먼저, 목적측면에서는 교육은 신체적 · 정서적 · 지적영역의 고른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용측면에서는 지식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경험과 감각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선구적 사상가로 몽테뉴와 로크의 사상이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에 준 영향력은 실로 크다.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체육사상은 바제도우의 범애헤학교에서 체육학습을 실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에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어린이의 판단력은 체력에 의해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보고 아동을 현명하게 하려면 항상 운동을 시켜 신체를 강건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체력을 어른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그는 이성에서 어서도 어른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그의 체육사상이 자연주의적이고 신체단련과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체육사상이 자연주의에 입각해 있음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김동규, 1999).

“자연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이 당신에게 지시하는 길을 가야 한다. 자연은 끊임없이 아이를 훈련한다. 자연은 모든 종류의 시련으로 아이의 체질을 단련한다. 아프다든가 괴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찍부터 아이에게 일러준다. 이가 날 때는 열이 나고 배가 아플 때는 경련이 일어난다. 기침을 오래하면 목이 막히고 벌레는 아이를 괴롭힌다. ...유년기는 대체로 병과 위험의 연속시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시련기를 보내면 아이에게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아이가 그 생명력을 써 먹을 수 있게 되면 생명의 기초는 점점 더 단단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이 질서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만일 억지로 손을 대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안인희, 1999).”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루소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교육을 주장하는 한편, 인위적인 교과체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신체와 정신 발달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정신적인 힘과 신체적인 힘이 함께 향상되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발달된다고 생각한 루소는 어린이들은 늘 움직이고, 어떤 현상에 다양한 원인을 세밀히 관찰하고 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루소는 어린이의 체육수업은 건강한 신체발달과 신체활동을 통한 감수성 훈련, 유해한 도시를 벗어난 자연에서 좋은 영양 섭취, 신선한 공기, 느슨한 옷, 잦은 목욕의 제공에 초점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단체경기를 통한 협동 정신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을 통한 긴장 완화적이고 창조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김동규, 1999).

이러한 자연을 통한 신체훈련은 건강이나 체질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훈련은 자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과 신체의 관계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한다. 자연이 인간에 제공하는 초기의 운동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자연을 감지하는 모든 감각은 사물들을 실험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루소의 체육내용은 자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에게는 자연법칙에 따른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김경오, 2004).

또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레크리에이션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신의 저서 ‘에밀’에서 가공의 인물 에밀에게 격렬한 신체운동을 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운동이 새로운 관심과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며 주의를 집중하는 데 훈련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이 생활의 평형을 가져다 주는 힘으로 보고 “교육의 참뜻은 레크리에이션을 행함으로써 심신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신을 수련하는 데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레크리에이션이 과도하게 행해지는 것에는 주의를 표하였다(노희덕, 1999).

자연법칙이 제시하는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교육방법으로 루소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즉, 실물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에게 유익한 지식은 사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어린이 스스로가 획득하는 지식인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사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는 아동의 정신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동이 사물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은 전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물교육은 감성을 지닌 아동을 위하여 감각기관의 사용방법을 가르치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조쟁규, 2003).

한편, 루소의 여성교육론의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한 것은 정호표(2001)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루소는 여성교육을 위해 소피(Sophie)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했다. 루소는

소피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특히 한 여성으로서 모든 자질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특성을 감성적, 의존적, 수동적, 정적, 사적인 면으로 규정하고 교육도 어머니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덕, 가사를 위한 능력 등의 배양에 제한했다. 여성에게 여성다움, 순종의 미덕, 기본적인 독·서·산의 능력 등에 머무는 극히 불평등한 교육론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복종을 이상적 가족사회와 시민사회에 필요한 덕성으로 생각했다.

루소는 여성들도 남성과 같은 신체단련을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했으나 남성과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특히 목적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2)의 내용은 그것과 관련된 루소의 주장이다.

“이 최초의 교훈이 어떠한 부분으로부터 여자애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가 영혼보다 먼저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교양은 육체의 교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서는 양성에게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교양의 목적은 상이하다. 남성에게 있어서 이 목적은 힘의 발달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매력의 발달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특질이 각기 하나의 성(性)에만 국한되어 발달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순서의 선후만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에게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것은 우아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필요하며, 남성에게도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교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유약(柔弱)해지면 남성들도 유약해지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건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남성들을 위해서 또는 그녀들에게서 태어나게 될 남자들을 위해서 역시 튼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수도원에서는 기숙생들이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옥외나 정원에서 뛰놀고 달음질치며 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집보다 바람직하다. 집안에서 딸아이들은 섬세하게 신경을 쓴 음식을 먹으며 항상 어리광을 부리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하면서 언제나 폐쇄된 방 안에서 어머니 감시 밑에 앉아 있으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며, 한순간도 놀고 뛰고 달리고 소리치고 하는, 그 나이 또래에 알맞은 말괄량이적인 쾌활성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없다. 있는 것이라곤 해로운 연약함이거나 이해심 없는 엄격성뿐, 이치에 합당한 것이라곤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젊은 처녀아이들의 신체와 마음은 함께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정봉구 역, 1995). “

루소의 여성교육론을 마무리로 그의 체육사상을 종합해 보면 체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신체단련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강조하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애국적 민주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주의자들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들에게 폭넓은 다양성을 제공하였으니 팀 스포츠, 개인 스포츠, 야외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활동들을 그들이 생리학적 · 사회학적 · 심리학적으로 준비되어진 때에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학생중심의 진보적인 체육개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노희덕, 1999). 끝으로 여성교육론적 입장에서는 남녀의 신체교육을 동등하게 강조하였으나 목적면에서 차이를 두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여성교육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체육교과 교육과정

가. 개념

체육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체육교육과정의 개념이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체육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정의되고 학교교육과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7차 체육과 교육과정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을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은 19세기 초이며 그 이후 체육에 대한 개념은 ‘신체의 교육’ (education of the physical)과 ‘신체를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으로 일반화 되었는데 이 둘의 개념은 체육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학문을 대표하거나 체육이 지닌 포괄적인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조미혜 외, 2004).

체육의 개념을 교육과정과 연결된 교육의 활동으로 바라본다면 체육교육과정이란 ‘체육 교과목 또는 체육의 교육 내용’, ‘체육활동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경험’, ‘체육에서 추구하는 일련의 의도된 학습의 결과’, ‘계획된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체육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미혜·오수학(2004)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교육과정의 개념을 사고/이념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 문서로서의 체육교육과정, 실천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 의도된 결과로서의 체육교육과정, 잠재적 체육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고/이념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은 인간이 하는 의도적인 행동은 모두 인간의 사고와 이념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체육 활동도 근본에는 체육과 관련된 사고와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고/이념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은 체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의미한다. 즉, 체육이 학교에서 왜 가르쳐져야 하는지, 체육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물음에 답을 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체육교육과정에는 가치정향이 내재되어 있다. 가치정향은 학자에 따라 가치관, 교과관, 교육과정 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째, 문서로서의 체육교육과정이란 일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명시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실천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체육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말한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또는 학급의 교실에서 실제로 체육 수업을 할 경우 공식적인 문서와는 다르게 수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체육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 즉 체육 교사에 의하여 해석되고 실행되는 교수 활동이 곧 실천으로서의 체육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넷째, 교육과정은 맥락에 따라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나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나 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성과나 산출은 교수·학습 과정에 참여한 결과 학생들이 실제로 갖게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나오게 되는 의도된 결과를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로 의도된 결과로서의 체육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 학교가 ‘의도적으로 가르친 교육 내용’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르쳐진 교육 내용’이 있다. 이때, ‘의도적으로 가르친 교육 내용’은 교사나 학교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인데 이를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된 교육 내용’ 또는 ‘학습된 경험’을 의미한다. 이를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르쳐진 교육 내용’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배우게 된 학습 결과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육교육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반적 개념이 아닌 다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을 때 체육교육과정도 학교체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목적과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 교육목적

체육(體育)은 어의(語意)대로 따진다면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을 의미한다. 즉, 체육은 신체의 교육으로써 ‘훈육(discipline)’과 ‘신체 단련(physical training)’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체육 교과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이와 다르다. 체육 교육의 목표는 ‘공식적인 하나의 전통으로서의 체육 문화에 입문’(최의창, 2000)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써 인식하고, 체육 수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수용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입문의 과정을 의미한

다(유정애, 2005).

이와 같이 제 7차 체육과 교육과정 목표는 심동적인 측면에서 신체 활동 참여를 통한 움직임 욕구의 실현과 운동 기능 및 체력의 증진, 인지적인 측면에서 운동 및 건강에 관한 지식의 이해, 정의적인 측면에서 개인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의 함양에 두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체육과 건강’ 교육과정 목표는 심동적인 측면에서 운동 경기 참여 및 감상 능력의 습득과 건강 생활을 위한 체력의 증진, 인지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통한 건강 및 여가 선용에 대한 지식의 이해, 정의적인 측면에서 운동의 생활화와 건전한 생활 태도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구성되었다(조미혜 · 오수학, 2004).

다. 교육내용

교육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학습 내용은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학습 내용이야말로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핵심적 주제라고 간주하였다. 즉, 학습 내용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설정된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학습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조미혜 · 오수학, 2004).

제7차 체육과의 내용 체계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하여 체육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에 관한 지도 내용에 ‘필수 내용’과 ‘선택 내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각 내용 영역별로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동일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기본 원칙으로 ‘필수 내용’을 선정하였고, 그 밖의 내용은 지역별, 학교별, 교사별, 학생별 요구와 특성에 따라 ‘선택 내용’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교육부, 1999).

이를 토대로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해설서(교육부, 199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과 실기는 이론편, 실기편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론을 운동 기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운동 선수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기보다는 일반 학생 수준에서 창의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실기 내용의 조직은 단순한 기능의 나열보다는 기능에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기능의 숙달 과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인 및 단체 운동에서 전술의 제시는 완성된 형태의 전술보다는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임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

또, 경기 방법 및 규칙은 실제 수업이나 기술 숙달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변형이 가능하며, 실제 경기를 이해하고 관람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재조직하여 제시한다.

넷째, 보건 내용의 구성은 보건과 관련한 사실의 이해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고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태도는 당위적이고 선언적이기보다 운동 참여 과정에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

3. 체육교과 교육방법

가. 개념

체육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설정되었고 체육교육과정모형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교육의 실현은 교사의 교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교체육이 추구하는 이상의 실현과 체육교

육과정 프로그램의 운영은 바로 운동장의 수업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체육교사의 수업활동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수업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방법론’이 요청되는 것이다(최의창, 2003, p246). 이와 같이 실천적 영역을 담당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교수·학습 방법의 진술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수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교육방법을 찾는 것이다.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측면들로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 교사, 학생,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조직, 내용 영역별 지도, 교수·학습에서의 유의점, 교수·학습의 자율적 운영 이라는 8개의 영역이 방법적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문서에 구체화되어 있다(조미혜 · 오수학, 2004).

먼저, 7차 교육과정문서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교수·학습의 기본 방향으로 “교수·학습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정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교사영역에서는 교사는 포괄적 내용 체계를 이해하고 이들 세부 학습 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지도 전략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녀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학생영역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진행한다.”라는 주장이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구체적으로 일반 학생, 특수 학생, 혼성 학급의 상황을 들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넷째, 교수·학습 계획영역에서는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지도 내용의 성격, 시간 배당, 학급 인원 수, 학생들의 성취 수준 및 발달 특성, 시설 및 용구, 계절성, 학교 및 지역의 특성, 학교 행사, 날씨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교수·학습 조직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흥미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과제 참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여섯째, 내용 영역별 지도에서는 각 내용 영역별 지도의 기본 원리와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교수·학습의 유의점으로는 발문과 피드백, 교수·학습 분위기, 학습자 관리, 교수·학습 매체, 안전 사고 예방 등 하위 영역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의 자율적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교수·학습 내용의 선택, 학습 지도 방법, 수업 시간 운영, 평가, 혼성 학급의 운영이라는 하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교육방법에 있어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영역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수·학습 이론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교육적 경험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교육부, 1999).

나. 교육방법 유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강조하듯이 교육방법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사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조미혜 · 오수학(2003)은 미래에 체육교과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동학습 중시, 개인차를 고려한 체육, 교과간 통합 추구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 보면 수업은 ‘학습자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의창(2003)은 이러한 ‘학습자중심’의 수업을 고려하면 과제식 학습, 질문식 학습, 동료 학습, 협동 학습, 자기지도식 학습 등의 5가지 수업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제식 학습은 ‘스테이션 수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학습과제를 연습하도록 수업환경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제공하여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식 학습은 과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는 과제연습 방식을 말한다. 교사는 성취하고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연습활동을 안내하는 질문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동료 학습은 연습과정에서 학급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의 과제학습방식이다.

협동적 학습은 동료 수업이 변형된 형태로 지적, 기능적 학습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과제 연습 방식이다. 특히 이 방식은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통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회성 함양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기지도식 학습은 교사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과제를 연습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스스로 학습’ 방식이다.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과제를 연습하거나 학습활동을 개발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위에 제시된 교육방법외에 모스톤의 11가지 수업스타일과 메츨러의 체육수업모형8가지가 현장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사는 무엇보다 다양한 수업방식의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의 수업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4. 선행연구검토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과 관련된 논문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루소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저서 ‘에밀’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다고 고백했듯 ‘에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분야의 연구물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루소의 교육사상이 ‘에밀’에서 강조하듯 한 인간의 성장에 신체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체육 분야에서도 루소의 사상에 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래는 루소의 교육사상과 관련 지어 연구한 체육교육분야의 연구물을

연도별로 나열하면서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의 흐름을 요약하였다. 이것을 통해 체육교육분야에서 루소의 교육사상이 어떻게 연구되고 어떤 점에 초점을 두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이번 연구의 흐름을 가늠하는데 유용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먼저 김양환(1994)은 “근대체육의 자연주의와 범애주의체육에 관한 연구”에서 자연주의와 범애주의체육의 사상가인 루소, 바세도우, 구츠무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의 체육관을 고찰하고, 아울러 현대체육을 재조명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루소의 연구는 ‘에밀’을 중심으로 그의 체육관을 기술하고 있으며 루소의 사상을 이어받아 체육을 학교교과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세도우와 구츠무츠의 체육관을 그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루소의 사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의 자연주의 사상은 자주독립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신체활동과 노동 존중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권운택·강효민(1995)은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자연주의 체육사상”에서 현대 체육교육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하여 첫째, 자연주의 철학사상의 계보를 이해하고 둘째, 교육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자연주의 체육사상이 현대체육의 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상과 실재에 있어서 바른 이해와 고찰을 준다는 점에서 체육이 지니는 가치로서 본질적 인간행위가 성립되는가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주의의 최대의 적이었던 인공성, 인위성으로 변질된 현대의 아동교육에 체육이 올바른 역할과 가치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근대 체육교육 발달에 학문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에서 철학적 원류가 되었으며 특히 자연과 신체발달을 핵심으로 본 견해는 현대 체육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면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정중훈(1999)은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에 나타난 신체형성론 연구”에서 신체형성론의 본질을 「에밀」이라는 저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루소에 있어서 신체의 의미와 체육론을 살펴보고, 루소의 신체관과 신체형성론의 성격을 파악하는 한편, 근대체육의 아버지라고 불리

는 구즈무츠와의 관련성을 비교하고 있다. “루소의 신체관은 자연적인 신체를 인정하며 종속적인 신체를 부정하는 ‘해방의 신체관’ 임과 동시에 이를 전제로 한 사회적 신체를 인정하여 집합적 존재를 설정하는 ‘연대의 신체관’ 이다. 루소에게는 해방과 연대적 신체관이 설정되어 자유로운 인간의 신체형성이 목표가 되었다.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주체적이고 전면적으로 준비된 신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김상순·김민철(1999)은 “자연주의적 신체관의 완성”에서 「에밀」에 나타난 루소의 사상형성의 배경과 자연주의 사상에 있어 그 개념과 교육과 체육에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논하고 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과 현대적 관점에서의 그 의미를 재조명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루소에 의하여 전통적 학과목이 부정되고 자연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학과가 사회적·신체적·지적 발달에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 또한 자연적인 성장을 강조하여 아동중심적인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체육실제에 미친 부분으로 이론적으로 머물렀던 학설이나 교리가 구체화되고 또 실행에 옮겨진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쟁규(2003)는 “루소의 교육사상이 체육교육에 주는 의의”에서 루소의 저서 ‘에밀’을 중심으로 루소의 교육사상을 파악하고 체육교육과의 관계를 논의하여 체육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루소의 인간관, 지식관, 체육보건 위생관의 진술을 통해 체육교육의 목적,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역할이라는 4가지 요인에 초점을 두고 그 의의를 파악하고 있다.

루소의 교육사상이 체육교육에 주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첫째, 체육교육 목적은 다양한 성격의 인간 조건이 잘 통합되어 있는 인간성 완성이며,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조화롭고 평범한 도덕적 인간형성이다. 둘째, 교육내용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이성과 판단능력이 배양되며, 어떠한 교육에 있어서나 견딜 수 있는 신체, 체력 등을 단련시켜야 함은 물론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교수-학습 방법으로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며, 발달 단계에 맞추어 감각기관을 통하여 신체 교육과 자발적인 놀이를 통하여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에서 교사는 지식 획득 측면에서는 친구 또는 협력자로서 아동이 주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교사가 학습할 내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교사활동과 학생 스스로의 참여 모두를 강조하는 학생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덕목(2003)은 “자연주의 철학과 체육교육의 현대적 의의 고찰”에서 자연주의의 철학적 진리의 근원인 ‘자연’과 그 정신이 차지하는 전인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중요시하는 자연의 법칙이 체육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자연주의사상을 주도한 루소와 자연주의의 교육이론 그리고 자연주의와 체육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고찰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주의 철학사상이 체육교육에 미친 영향으로 첫째, 자연주의 교육에서는 건강, 체육,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자연주의 체육의 의의는 타고난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데 있다. 셋째, 자연주의 체육의 내용은 학생의 흥미, 요구 등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넷째, 자연주의 체육은 환경 속에서 순수한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였다. 다섯째, 자연주의 체육은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자연주의 체육은 사내아이를 보다 사내아이답게 만드는 것은 체육활동의 장려와 체육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경오(2004)는 “루소의 교육사상이 현대체육에 주는 의미”에서 루소의 「에밀」을 분석하여 체육의 목적, 체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관, 학생관 등을 밝혀 현대체육에 주는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루소의 교육사상이 현대체육에 주는 의미로 첫째, 체육의 목적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육성을 강조한 것은 아동들의 신체 활동이 지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오늘날의 체육과 건강교육과의 관계 규명에 큰 의미를 준다. 둘째, 체육의 방법과 내용은 유아의 신체에 구속 없이 자발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위생의 습관화를

제시하고 유모의 건전한 심신상태를 중요시한 것은 오늘날 유아의 건강교육과 양육법에 교훈을 주고 있다. 셋째, 교사는 학생의 내면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이들을 너무 어른들의 틀에 맞추어 기르기 위해 강압적인 지도방법에 의해 일어나는 제반 부작용을 반성하게 해주는데 의의를 가지며,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교사로 적합함을 제시하며 현대의 교사들이 지향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아동은 ‘선(善)’한 존재로 태어나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자연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정한 것은 현대교육에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형성해 가는 구성주의 학습방법에 부합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정학(2005)은 “루소의 교육철학과 체육사상”에서 루소의 교육철학과 체육사상을 「에밀」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의 교육철학 속에 나타난 체육사상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주의 교육의 참된 의미를 규명키 위해 이 논문은 그의 사상적 배경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인간관 및 심신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루소는 교육에 있어서의 체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체육을 단순히 외형적 형태의 신체움직임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체육활동을 통한 인격의 발달 및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III. 체육교과의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

1. 교육목적

가.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 육성

체육교과교육의 목적 중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목적은 체육과 교육론(pp. 16~19)에서 체육교과가 지향하는 목표영역으로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신체적 영역은 신체의 각종 조직기관의 발달을 통하여 학생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건강 관련 체력과 운동기능 관련 체력을 구분하고 특히 건강관련체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인지적 영역은 교과서의 이론영역 부분으로 각 종목의 가치, 역사, 특성, 과학적 원리, 규칙, 전술 등의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정신적 영역의 발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의적 영역은 교육과정에 진술된 각 종목에 담겨있는 스포츠맨십, 책임감, 협동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적 영역 중 정적 부분의 발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심동적 영역은 각종 운동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운동기능의 발달과 건강한 청소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강 관련 체력의 발달 및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정신능력의 발달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체육교과는 운동 기능, 운동 종목에 담겨진 태도, 그리고 그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타 교과와는 달리 학생의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균형적으로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통합을 이룸으로써 전인 교육의 실현을 도모하는 체육교과는 여러 학교교과 중에서 심신의 통합을 가장 온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교과라고 주장한 최의창(2003)의 논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국가교육과정문서에 명시된 체육교과목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

육 활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적 목표를 추구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체육 활동을 그것 자체로 배워 그 의미의 이해와 건강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며, 체육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덕목들을 함양하는 것이다(교육부, 1999).

또한 체육 교과는 운동 기능, 운동 종목에 담겨진 태도, 그리고 그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다른 교과에서와는 달리 학생의 신체적 측면, 정의적 측면,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고르게 추구할 수 있는 종합 교과 성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교육부, 1999)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란 체육교육의 목적에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해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

“감각적 존재가 행동적으로 됨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능력에 상응한 판별력을 몸에 지니게 된다. 그리고 체력이 자기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 여분의 체력을 다른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사변적(思辨的)인 능력이 어린이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자의 지력(知力)을 기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 지력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체력을 배양(培養)하도록 하라. 끊임없이 그의 육체를 단련시키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라. 그를 지혜롭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를 일하게 하고 행동케 하고 달음질치게 하고 소리치게 하고 항상 움직이게 하라. 기운찬 생활로 말미암아 어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는 이성에 있어서도 어른이 될 것이다(정봉구 역, 1995).”

예1)에서 “감각적 존재가 행동적으로 됨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상응한 판별력을 지니게 된다는 언급과 지력을 기르려고 하면 체력을 배양하도록 하라, 끊임없이 그의 육체를 단련시키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라. 그를 지혜롭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말들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2)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그 도구를 입수하는 일부터 시작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구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지(四肢)를 훈련해야 하고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기관(器官)을 단련시켜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이지(理智)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그와 같은 도구들을 공급해 주는 신체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참된 이성은 신체와 무관하게 형성되기는커녕 신체의 구성이 좋을 때에만 정신의 작용도 용이하고 확실해진다”(정봉구 역, 1995).”

예2)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지를 훈련해야 하고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기관을 단련시켜야 한다.” 와 “인간의 참된 이성은 신체와 무관하게 형성되기는커녕 신체의 구성이 좋을 때에만 정신의 작용도 용이하고 확실해진다” 는 언급 역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하고 있다

예3)

“아이의 신체 단련은 그를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린이는 언제나 운동상태, 즉 뛰고, 놀고, 일하고, 활동하는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3)에서 루소는 신체교육을 정신교육의 바탕에 두었으며, 신체교육 없이는 온전한 정신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루소는 계발하고 노력하는 신체의 활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의 활동이 생성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덕과 지의 능력을 최고상태까지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의 건강 즉 체력과 감각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해져야만 심·신이 고루 발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경오(2004)의 논문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루소는 인간은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통하여 사려 깊고 판단

력 있는 인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은 조화롭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정학(2005)의 논문과 루소는 신체와 정신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강한 신체는 그 만큼 사려 깊은 판단력이 있는 인간이 될 가능성을 준다. 이는 일반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것이다. 즉, 몸이 튼튼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대립시키는 버릇은 잘못된 습관에 사로잡힌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안인희(1999)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체육교과교육의 목적인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육성과 거의 일치하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교과교육의 목적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건강한 신체 육성

체육과의 목적 진술에 앞서 성격을 논할 때 “체육교과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교과”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러한 외재적 가치에는 학생의 체력과 건강증진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와 같은 주장을 국가교육과정문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 교과는 외재적 가치도 추구하는데, 이것은 체육 활동을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체육 활동은 학생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데 활용된다. ... 이와 같이 체육 활동은 내재적 ·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교육부, 1999)”.

그리고 국가교육과정문서에는 체육과의 내용영역으로 체조 · 육상 운동 · 수영 · 개인 및 단체운동 · 무용 · 보건 · 체력 운동 · 이론 등 8가지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 이 내용영역은 체육교과의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강한 신체 육성이라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

어 있다. 특히 하나의 내용영역으로 체력 운동 영역을 제시한 것을 보더라도 건강한 신체 육성이라는 목적이 잘 드러나 보인다.

체력 운동 영역은 활기찬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신체의 활동 능력인 건강 체력과 실제 운동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 운동 기능 체력으로 나누어져 지도된다. 건강 체력에는 심폐 지구력, 체 지방량,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신체 육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도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신체 육성이라는 오늘날의 체육교육의 목적에 영향을 준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

“육체가 정신의 명령에 따르려면 기운이 있어야 한다. 무절제한 생활은 결국은 몸을 망치고, 금욕이나 단식도 비슷한 원인으로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수가 있다. 육체란 약할수록 많은 욕구가 생기고 강할수록 복종을 잘하는 법이다. 모든 헛된 욕심은 허약한 육체에 깃들이는 법이므로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만큼 불만이 싹튼다(권웅호 역, 1997).”

예1)에서 루소는 특히 모든 악은 허약한 데서 시작됨으로 강한 의지와 건강한 신체는 강한 정신을 낳고 나아가 도덕적 품성의 기초가 됨으로 먼저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건강한 신체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예2)에서처럼 루소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 의술의 유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면서까지 건강한 신체육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2)

“허약한 육체는 허약한 정신을 만든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의술은 질병을 치료한다고는 하나, 인간에게는 질병보다도 약(藥)으로 인한 해가 더 큰 것이다(권웅호 역, 1997).”

그리고 건강한 신체 육성을 중시한 루소의 주장을 이정학(2005)은 다

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루소는 「에밀」에서 격렬한 신체운동을 권하고 신체운동은 새로운 관심과 기분을 좋게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 훈련시킨다고 하였다. 또 그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건강하고 이성적이며 현명하게끔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신체의 발달, 신체활동을 통한 지각발달, 충분한 영양분의 공급, 신선한 공기, 편한 의복, 빈번한 목욕, 해로운 도시에서 벗어나 자주 시골을 방문할 것,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여가선용 그리고 단체게임을 통한 협동심의 발달 등을 권장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감각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책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것보다 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이정학, 2005).

이와 같이 루소의 교육사상은 그 당시 주지주의자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건강과 신체훈련 및 보건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루소의 교육사상이 지향하는 인간본연의 모습을 그의 저작에서는 ‘자연인’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이 ‘자연인’의 시작점을 신체육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자연인이 알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그 자신의 신체이다. 자연인이란 바로 신체적 인간이며 튼튼한 신체 없이는 자연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종훈(1999)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신체 육성의 강조를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이는 것처럼 루소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체육교과목의 목적인 건강한 신체 육성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루소의 교육사상이 체육교과목의 목적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민주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육성

미래의 체육교육과정이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 ‘협동 학습을 중시하는 체육’을 지향할 것을 강조한다. 체육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협동심, 리더십, 스포츠맨십과 같은 사회성의 함양은 타고 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체육 교과 고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학교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의 풍토가 심각한 사회 현

상으로 문제화되는 요즈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의적 영역을 가르쳐야 하는 체육의 역할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화가 강조되고, 지식 기반 사회로 이 사회가 구성되면서 더더욱 집단에서의 협동심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덕목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조미혜 외, 2004).

운동의 기능은 단순히 튼튼한 체격이나 민첩한 동작을 발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기강, 평등, 우애, 협동심 같은 바람직한 가치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자기네 마음 내키는 대로 따로 놀게 하지 말고 함께 여럿이 놀게 함으로써 협력이나 경쟁 같은 공동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이정학, 2005).

앞서 진술했듯이 체육교과는 기능적, 학문적, 규범적 측면의 3가지가 통합된 교과로서 학생들에게 기능,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및 규범을 가르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루소는 “평등, 우애,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연의 법에 의하여 사회발전이 이바지할 것을 희망하였다(김상순 · 김민철, 1999).

또한 그는 스포츠는 이상국가의 민주시민 자격을 갖추도록 어린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만약 민주적인 국가가 등장하면 어린이들은 게임과 운동에 의하여 유년시절부터 규율, 평등, 우애, 경쟁, 동료시민들과의 생활, 공적인 칭찬의 추구 등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동원, 1997).

결국 루소가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에서의 체육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충분한 운동기술 · 레크리에이션 · 건강교육 등을 포함한 건전한 신체훈련을 통하여 심신의 수련을 쌓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애국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루소에게 있어 신체활동은 힘이나 체력의 발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그는 아동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집단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정신상태를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에 적합한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면서 잠재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 신체활동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다

(노희덕, 1999).

예1)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은 역시 아이들의 이해능력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과의 관련상 인간의 상호 의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사람들의 상호 협력관계의 유용성부터 설명하는 것이 좋다 (안인희 역, 1999)”.

예1)에서 보듯이 참된 인간교육이 공리적 인간상의 완성을 지향할 때 체육교육의 목적도 건강증진을 넘어 스포츠맨십을 갖춘 하나의 도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윤리적 인식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에서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것에 저항하고 거부할 줄 아는 건전한 판단능력과 실천 의지를 길러 가치판단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는 조쟁규(2003)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 체육교과교육의 목적인 민주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육성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교과교육의 목적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내용

가. 경험중심 교육과정 편성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학교교육에 체육교과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신체활동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주창자인 듀이는 교육에서 ‘경험’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정신과 신체활동의 총체적 관점을 정립시켰다. 그러한 이유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체육교과는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했고 체육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영역이 포함하게 되었다.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크게 초등학교는 놀이중심, 중학교는 스포츠종목중심, 고등학교는 생활체육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상황에 맞게 다양한 내용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인 내용영역은 체조, 육상 운동,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무용, 보건, 체력 운동, 이론 등으로 각각의 영역이 계열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학습자 중심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체육교과 교육과정에 편성되는데 영향을 준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감각은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며 어린 시절에 완성해야 할 능력이라 다른 능력에 앞서 최초로 계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감각 경험은 단순히 그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보다도 이 능력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느낌을 학습하는 것이다. 판단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으나 신체 단련에 쓸모가 있는 순전히 자연적이며 기계적인 훈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거나 뛰고 달리고 던지고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과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도 있다(안인희 역, 1999)."

예1)에 보이는 것처럼 루소는 “아동은 실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로 태어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루소가 말하는 생득적인 학습능력은 감각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아동은 실물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루소는 모든 교육의 첫 출발점을 바로 이 감각기관에서 찾았다. 아동이 감각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지식 획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루소의 경우 감각 경험은 그 역할이 단지 교육의 첫 출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루소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각의 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인식에 있어서의 감각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각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일체의 지식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루소는 일체의 지식이 감각적 인상에서 유래된다는 경험론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유한구, 1998, p106).

루소가 자신의 교육사상을 펼치는 근원의 하나로 그 당시 행해졌던 교육을 비판하면서 참된 인간본연을 회복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는 사상적으로 계몽주의적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모든 사회문화적 요소에 합리주의적 성격이 짙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은 주지주의적 형태를 띠었고 아이들의 교육은 암기, 기억 위주의 교과중심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물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에 대한 관념을 획득할 수 있다는 루소의 생각은 감각 훈련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인 예2)와 예3)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유한구, 1998).

예2)

“시각이란 모든 감각 중에서도 정신의 판단에서 분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보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시각과 청각 중 우선 시각으로 하여금 형태나 거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길들이기 위해 먼저 시각과 촉각을 오랫동안 비교해보아야 한다. 촉각이 없이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공간관념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크기를 평가하는 법을 배우려면 걸어보고, 만져보고, 세어보고, 재어보아야만 가능한 법이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평가만하고 있다면 감각은 도구에만 의존하게 되어 감각의 정확성을 전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예밀은 첫눈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비교하기를 계속함으로써 언제나 눈만으로 측정하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나는 아이가 처음에 눈짐작으로 했던 측정들을 실제로 자로 측정해 보여서 나쁜 버릇이 남아 있으면 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그것을 고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싶다(권응호 역, 1997).”

예3)

“어린이의 최초의 미각, 즉 단순하고 보편적인 미각을 오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좋은 음식과 먹기 싫은 음식이 구분되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습관이 건강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이런 식의 생활이 자연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어린이의 식생활은 단순해야

한다(안인희 역, 1999)."

루소는 자신의 학생에게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제6감인 지각 또는 관념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에밀’에 자세히 기술하여 감각 경험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법칙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학생들에게 항상 변화하는 장애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타남에 의미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조기교육과 수능을 위한 주입식교육에 따른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는 교육과는 달리 루소의 자연교육은 직접 학생이 참여하여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험교육인 것이라고 말하는 김경오(2004)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루소의 교육사상이 오늘날 교육내용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많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점에서 교육내용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체육교사는 체육활동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기능을 숙련하는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상투적 고정관념을 폐기해야 한다. 체육의 교수학습과정, 즉 체육적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전수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구성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은 교수학습과정이 단지 체육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체육교사와 학생은 서로 배우며, 함께 가르친다. 체육교사와 학생은 체육활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다. 때로는 교사와 학생간에, 때로는 학생과 학생간에 교육내용을 구성적으로 가르치고 학습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교육목표를 성취해나가는 것이다(최의창, 2003).

또한 오늘날의 체육교과교육 지도에서 학생의 수준 즉 능력과 적성의

고려를 중요시 다루고 있다.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전체 8개항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3번째 항인 학생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교수·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고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진행한다.” 이 말은 모든 학생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학습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는 다양한 배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흥미, 요구, 기능, 체력, 체격, 신체 조건 등 여러 요인에서 그 상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생의 배경적 상태가 감안되어 체육 학습 기회가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다(교육부,1999).

이렇게 학생의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해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주의적인 교육과정에 속하는 학과들은 사회적 · 신체적 · 정신적 성장발달에 관한 5단계와 조화를 이루었고 전통적인 학과목에 대해서는 배척하였다.

루소는 성장발육의 5단계에 적합한 자연주의적 학습과정을 에밀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김상순 · 김민철(1999)의 저서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적 단계(탄생~5세): 동물적 단계에는 신체적 활동의 욕구가 가장 강렬하다. 이 시기에는 자연적 · 신체적 요구를 대표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속박도 가하지 않고 자유로이 운동하게 하며 훈련 과정도 유아기부터 시작하였다.

미완의 단계(5세~12세): 미완의 단계의 시기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하며 보다 나은 감각의 식별 능력을 갖게하는 광범위한 게임이나 놀이, 스포츠로 짜여져 있다.

전원 생활의 단계(12~15세): 전원 생활의 단계를 루소는 이 시기에 이성과 판단의 힘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여 형식적 교육이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에밀은 흥미롭고 실제적이고 직접 도움이 되는 공부만을 추구하였다.

농업과 수공업의 기술은 그를 성인의 노동에 익숙하게 지도를 하며 더욱 신체 노동을 시킨다.

사회적 단계(15~20세): 사회적 단계의 시기에 이르면 에밀의 추리력은 복잡한 개념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성숙되어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문제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다.

루소는 이 시기를 성교육의 시기로 보고 에밀의 정력을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훈련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다.

이상적 단계(성인): 이상적 단계는 이상적 여성인 소피아와의 결혼으로 완결되고 있다.

결국, 루소에 의하여 전통적 학과목이 부정되고 자연적인 커리큘럼에 의한 학과가 사회적 · 신체적 · 지적인 성장발달에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 루소는 발달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그 단계에 적합한 자연주의적 학습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아동의 자유 성향에 따라 발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행하였다.

루소가 주장하는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은 결국, 아동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루소는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 성장발달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발달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결국 각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이 오늘날 체육교과의 교육과정에 준 영향은 매우 크다. 최근에 체육과에서 부각되고 있는 체육의 교수학습과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학생이고 또 학생의 발달단계에 초점을 두고 교수가 진행되는 점에서 루소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IV. 체육교과의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

1. 교육방법

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체육교수학습과정에서도 학생을 피동적으로 보는 과거의 입장과는 달리 수업의 주체로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최의창(2003)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체육교사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직접 전달식의 일방적 수업지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지식이란 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체육교과내용의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계발시킬 수 있도록 아주 다종다양한 수업방법들이 장려되고 있다. 교수학습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주도권을 이양 받음으로써 더욱 능동적으로 체육현상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체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Metzler, 2000, 재인용).

체육교수학습과정이 구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체육교사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체육교사가 해야될 일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능력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임을 말해준다. 체육교사가 활용하는 통합적 수업방법은 학생의 자발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 학습능력이란 기억력, 수집력, 이해력, 해석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 등 학생이 가진 총체적 인식능력으로서의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을 말한다.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은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하나로 뭉쳐져서 표현되는 인간의 총체적 인식능력이다. 이 능력을 통하여 학생은 스스로의 학습을 실행하고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의 습득이 체

육수업의 관건이며, 통합적 체육수업의 최종 지향점이 바로 이 총체적 인식능력으로서의 “학생의 학습능력” 이다(최의창, 2003).

이와 같이 학생을 지식획득의 주체로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과 자발적 학습능력이라는 모습이 ‘학생’ 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케 하는 등의 새로운 교육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라는 체육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상을 「에밀」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

“나는 여기서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유익한 규칙을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시간을 아끼지 말고 소비하라는 것이다. 독자들이여, 내 역설을 용서하라. 깊이 생각해보면 역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나는 편견을 가진 인간이 되기보다는 역설을 하는 인간이 되고 싶은 것이다. ... 만일 아이가 단시일내에 유아기에서 이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오늘날의 교육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인 발육에 따라 교육을 시키려면 그와는 반대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정신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너무 정신을 쓰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이 눈을 뜨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그에게 비추는 빛을 아이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의 교육은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아이들의 마음을 악덕이나 그릇된 정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면, 또 아이들이 열두 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기를 수만 있다면 아이의 이해력은 이성을 향해 자연히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릇된 습관이 없는 아이에게는 여러분의 노력과 효과를 방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곧 가장 현명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육에 의해 현명한 사람이 됨으로써 상당한 교육의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권응호 역, 1997)”

예1)은 루소의 교육방법 중 ‘소극적 교육’에 관해 언급하는 부분이다. 이 소극적 교육은 루소의 교육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외부의 적극적인 자극이 아닌 아이 본연의 자연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키려는 개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루소의 메시지가 전

하는 바도 이 소극적 교육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이 아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소극적 교육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관한 루소의 설명이 예2)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예2)

“이 교육은 자연, 인간, 사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여러 기관이나 여러 능력의 신체적 발달은 자연교육이다. 이 발달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인간교육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물에 대해 우리 자신이 경험을 쌓는 것은 사물교육이다. 이 세 종류의 교육은 결국 동일한 목표를 향한 것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의 교육의 각기 다른 성질을 알아야 한다.

먼저 자연교육은 신체 내부의 발달에서 온 것으로 외부에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든지 억지로 걷게 할 수는 없다. 사물교육은 어느 정도 사람의 의지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역시 환경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인간교육은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라고 하나 그것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을 누가 감히 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교육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목표를 바로 세웠다고 해서 틀림없이 그 목표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교육을 하나의 기술로 본다면 이 기술이 거의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세 가지 교육, 즉 자연과 사물과 인간교육의 일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 가지 교육의 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목표는 자연교육의 목표에 일치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교육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안인희 역, 1999).”

이와 같이 자연, 사물, 인간의 세 가지 교육이 달성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교육에 나머지 두 가지 교육을 맡기는 소극적 교육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루소가 현존하던 시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원죄 사상이 통용되는 사회로서 아이들을 망원경을 거꾸로 해서 본 어른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아이들의 본성은 무시되고 절대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이 선행하게 되었

다. 그러한 현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루소의 주장을 예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3)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어른들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찰해야 하고 아이들의 성격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게 아무 일도 강요해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이런 일이 공연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때가 오면 그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마치 현명한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기 전에 병자의 체질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한다(안인희 역, 1999).”

루소는 “사람은 스스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남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에 비해 보다 명료하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물교육, 놀이, 발견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 방법이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도록 하는 방법인 까닭은 바로 이들이 각 연령단계별 학습자의 특성(또는 본성)에 따라 처방된 것이기 때문이다(유한구, 1998).

더욱이 학습자에게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기유발방법으로 호기심과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발달단계상 지식을 배워야 할 소년기의 단계에서 호기심과 유용성의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4)와 예5)는 루소가 ‘에밀’에서 호기심과 유용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4)

“여러분의 제자로 하여금 자연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면 그들은 곧 호기심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곧바로 만족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의 능력 한도 내에서 문제를 제시하여 그것을 스스로 풀도록 해야 한다(권응호 역, 1997).”

예5)

“태양의 운행과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동안 학생은 갑자기 이런 것의 유용성을 따진다고 가정하자. 그 질문에 대해 선생은 이런 기회에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여행의 유익성이나 상업의 이점, 그리고 각기 다른 풍토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각 민족의 풍습, 달력 사용법, 농사에 필요한 계절 순환의 계산법, 항해술 등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치학, 박물학, 천문학, 그리고 도덕, 국제법도 그 설명 속에 포함시켜 학생의 학문에의 욕구를 북돋아 주려 한다(안인희 역, 1999).”

루소의 교육방법인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지식획득의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 ‘학생’을 교육의 핵심에 두는 관점인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구성주의 입장은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 가르침은 학생의 능동적 학습참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한 보조적 활동이라는 것, 학생은 자신의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교사는 이 가능성과 의지가 개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라는 최의창(2003)의 연구에서도 루소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라는 교육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발적 탐구활동 지향

흔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으로 ‘창의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창의력은 자신의 사고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함을 의미한다. ‘제3의 물결’을 저술한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추구하는 다섯 가지 인간상 가운데

데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그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조미혜 외, 2004).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창의력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을 꼽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루소가 제시한 자발적 탐구활동 즉 발견학습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려는 오늘날의 교육방법에 근본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 교과에서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로 과거에는 우연히 학습되는 것으로 간주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수업 현장에서 교사의 계획 하에 이러한 고등사고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교육 모형이나 이해중심게임 모형을 적용한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 기술 능력을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질문한다거나, 체력 모형 수업에서 여러 수준의 체력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한다거나, 움직임 모형 수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같은 형태로 직접 학생들의 고등사고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게임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게임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 기술을 기를 수도 있다(Chen & Rovegno, 1999, 재인용).

이렇게 자발적 탐구 활동 지향이라는 체육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중심으로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

“유년기는 시간이 길었다. 그때 우리는 시간 사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서두르는 것보다는 잘못이 적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다. 시간이 너무 짧다. 정념이 가까이 와 있고, 일단 그 세계에 들어서면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짧은 시기에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취미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취미가 발달되면, 학문을 배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원리다(안인희 역, 1999).”

예1)에서 루소는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 또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자발적 탐구활동 즉 발견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발견학습은 소년기에 교육되어 지는 것으로 이전의 단계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로 루소는 유익한 지식을 활용한 자발적 탐구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낸다. 첫째, 발견학습은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고 명석하게 알도록 해준다. 둘째, 발견학습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유한구,1998). 이와 관련된 루소의 말을 들어보자.

예2)

“나의 교육방침은 어린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백한 관념들만을 그의 머리 속에 심어주는 데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잘못 생각하지만 앎없다면 괜찮다. 그리고 내가 그의 머리 속에 진리를 되새겨주는 것은 진리를 대신할 잘못들로부터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일 뿐이다. 이성과 판단력은 서서히 발달하지만 편견은 순식간에 몰려오는데, 그를 이러한 편견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학문을 그 자체로서만 본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식에 빠진 사람이 그것의 매력에 끌려 끝없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 나는 마치 어린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을 모을때 처음에는 그것을 줍다가 새로 보는 것들에 이끌려 먼저 모은 것을 버리고 다시 줍다가 그것에 압도되어 더 이상 무엇을 고를지 몰라, 결국은 조개껍질을 모두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권응호 역, 1997).”

루소는 아동의 자발적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조건으로 아동이 학습의 대상에 대하여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밀’에서 흥미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목전의 이익’, ‘즉각적 필요’ 또는 ‘자연적 호기심’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유한구, 1998).

예3)

“우리가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인과관계,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선과 악, 결코 느끼지 못했던 욕구 등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에 의해 흥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열다섯 살에 현재의 행복을 보고 서른 살에 천국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노력을 하지도 않으리라. 어린이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들에게 입증해보이기는 쉽다. 그러나 그를 이해시킬 수 없다면 입증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헛되이 찬성하게 하거나 비난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열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어떻게 열중할 수 있을 것인가?(권응호 역, 1997).”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루소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체육교육방법인 자발적 탐구 활동 지향에 많은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 제공

오늘날의 체육교육은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띄고 있다. 그래서 교육방법에서도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학습 지도 방법의 효과성은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 과정과 그 결과에 비추어서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지도 방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체육교육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물을 쏟아내고 있는 분야가 교육방법이며 대표적으로 최의창의 체육수업방식, 모스톤의 체육 수업 스타일, 그리고 메츨러의 체육 수업 모형등이 학교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의창의 체육수업방식은 수업환경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 방식으로 적극적 수업, 과제식 수업, 질문식 수업, 동료 수업, 협동적 학습, 자기 지

도식 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스톤의 체육 수업 스타일은 ‘수업활동은 연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정하여 과제활동 전, 중, 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지도 방식을 지시형 스타일, 연습형 스타일, 상호학습형 스타일, 포괄형 스타일, 유도발견형 스타일, 수렴발견형 스타일, 확산발견형 스타일, 자기설계형 스타일, 자기주도형 스타일, 자기학습형 스타일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메츨러의 체육 수업 모형은 체육교과의 목표로 제시된 3가지 영역의 ‘통합적 관점’을 추구하는 지도방식으로 직접교수 모형, 개별화지도 모형, 협동학습 모형, 스포츠교육 모형, 동료교수 모형, 탐구중심 교수 모형, 이해중심게임 모형, 사회책임감 모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 제공이라는 교육방법에 영향을 미친 루소의 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을 통해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1)

“자신이 경험한 환희로 교사는 어린이에게 그 감격을 전하고 싶어한다. 그는 자신이 감동을 받은 느낌에 대해 제자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그를 감동시키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자연 광경의 생명은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그 광경을 보아야 한다. 어린이는 사물 자체를 지각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관계는 모르며 그것들이 부르는 노래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들을 수 없다. 이 모든 감각으로부터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된 인상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필요하다. 그가 건조한 평야를 뛰어 다녀 보지 못했고, 뜨거운 모래에 그의 발을 태워보지 못했으며 태양이 내리쬘는 바위의 뜨거운 반사에 괴로움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아름다운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맛보겠는가? 꽃들의 향기, 초원의 매력, 이슬의 촉촉한 내음, 그리고 폭신평신했고 부드러운 잔디 위에서의 산보가 어떻게 그를 매혹시키겠는가? 사람들이 상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날을 그릴 줄 모른다면 그가 아름다운 하루가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손이 자연을 창조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할 것인가?(권응호 역, 1997).”

예1)에서 드러나듯 루소는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실물경험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루소에게서 사물에 의존하는 교육 즉, 실물교육은 아동이 감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우선 사물은 아동에 의해서 끊임없이 관찰되어지고 실험되어지는 대상이다. 실물교육은 아동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각기관과 신체를 활용하여 사물을 감각적으로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물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동은 사물로 인하여 자신의 감각기관을 바르게 활용하여 운동감각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조쟁규, 2003). 예2)에서 다시 한번 실물경험을 강조하는 루소의 말을 들어보자.

예2)

“나는 말로 설명하길 좋아하지 않는데, 어린이들은 그런 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거의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실물! 실물을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말이 많은 교육은 단지 수다쟁이들만을 만들어낼 뿐이다(권응호 역, 1997).”

또한 루소는 아동의 교육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신체활동(놀이)속에서 또는 놀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교육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동 스스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동에게 즐거운 것, 즉 놀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쟁규, 2003). 이러한 놀이의 중요성을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3)

“아이가 최초의 몇 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 해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루 종일 뛰어놀고 달리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인가? 평생에 이보다 더 바쁠 때는 없을 것이다. 매우 엄격한 교육론이라 생각되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아이들을 축제나 놀이·노래·오락만으로 기르고 있다. 아이들에게 노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보인다(권응호 역, 1997).”

이와 같이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를 강조한 루소의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한 지식만이 학습자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과 학습자는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신체적 접촉이 교육의 주 대상이 되는 체육교육에서 심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조쟁규(2003)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체육교육방법의 하나인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 제공이라는 주제와 거의 일치하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체육교과교육의 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체육교과의 교육과정(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루소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육교과 교육과정

가. 교육목적

첫째,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 육성

루소는 “허약한 신체는 정신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신체는 정신의 명령

에 따르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사고하게 되는 데는 우리들의 지능의 도구인 사지의 감각기관 및 신체 기관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통해 신체 활동에 따라 판별력, 즉 정신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고 믿는 심신의 조화로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오늘날 체육교육의 목적인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목적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건강한 신체 육성

아이의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하며, 일부러 고생시킴으로써 온갖 모진 고통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또는 허약한 육체는 정신까지도 약하게 만든다는 루소의 주장은 오늘날 건강한 신체 육성이라는 체육교육의 목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민주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육성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루소의 저서를 토대로 체육의 목적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고 사회적 차원으로 애국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체육교육의 목적이 건강증진을 넘어 스포츠맨십을 갖춘 하나의 도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 육성이라는 오늘날의 체육 교육 목적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육내용

첫째, 경험중심 교육과정 편성

루소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각의 문으로 들어온다.” 또는 “감각 훈련은 단순히 그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보다도 이 능력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느낌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식에 있어서의 감각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지식의 습득은 실물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사물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루소는 ‘에밀’에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제6감각인 지각 또는 관념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그가 감각 경험중심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교육내용으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편성되는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루소의 교육소설 ‘에밀’의 전체 구성틀은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모습을 서술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또 루소는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천부적인 재능 · 취미 · 욕구 · 자질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많건 적건 간에 진보하게 마련이다.” 라는 주장에서 드러나듯 각 개인의 발달단계와 그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교육내용으로 성장발달 및 지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편성되는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나타났다.

2. 체육교과 교육방법

가. 교육방법

첫째,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

루소는 교육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며 유익한 규칙을 말하면서 교육에 소비되는 시간을 아끼지 말고 소비하라고 말한다. 또 “초기의 교육은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루소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인 ‘소극적 교육’ 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소극적 교육론의 핵심은 교육에 있어 외부의 적극적인 자극이 아닌 아이 본연의 자연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특히 소극적 교육론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루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루소는 교육의 3요소로 ‘자연’, ‘인간’, ‘사물’ 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교육의 일치를 위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 교육에 목표를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육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체육교과 교육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자발적 탐구 활동 지향

루소는 “짧은 시기에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랑하는 취미를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취미가 발달되면, 학문을 배우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원리다.” 또 “나의 교육방침은 어린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백한 관념들만을 그의 머리 속에 심어주는 데 있다” 라는 주장에서처럼 유익한 지식을 활용한 자발적 탐구활동 즉 발견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교육이 학생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도록 자발적 탐구 활동을 추구하는 체육교과 교육방법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나타났다.

셋째,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 제공

루소는 실물경험이 아동과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은 사물로 인하여 자신의 감각기관을 바르게 활용하여 운동감각능력을 발달 시키게 된다고 말한다. 또 루소는 아동의 교육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신체 활동 속에서 놀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교육이 학습자에게 풍부한 실물경험과 놀이를 제공하는데 루소의 교육사상이 체육교과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1999).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2001).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강동원(1997). 체육 · 스포츠사 연구. 보경문화사
김경오(2004). 루소의 체육사상이 현대체육에 주는 의미.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환 · 강선보(1995). 교육철학. 박영사
김양환(1994). 근대체육의 자연주의와 범애주의체육에 관한 연구. 한체대 체육연구소논문집
김대식 · 김영환 · 신현균(1996). 체육철학. 나남출판
김상순 · 김민철(1999). 스포츠사상(인물편). 바탕
김상용(1995). J.B. Basedow의 사상과 범애학교에 관한 체육. 부산교대체육연구소논문집
김동규(1999). 세계체육사 - 고대동방,서양사-. 영남대출판부

- 김홍식(2002). 스포츠철학시론. 무지개사
- 권응호 역(1997). 에밀. 홍신문화사
- 권운택 · 강효민(1995). 루소의 ‘에밀’에 나타난 자연주의 체육사상. 한국체육대학교부설체육연구소
- 노희덕(1999). 세계체육사. 서울대출판부
- 연세대교육철학회(2003). 위대한 교육사상가 2. 교육과학사
- 유정애(2005). 체육수업비평. 무지개사
- 유한구(1998). 교육인식론서설. 교육과학사
- 이행원(1995).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 한국체육학회
- 이정학(2005). 체육과 스포츠의 철학적 탐구. 대한미디어
- 안인희(1997). 루소의 교육론. 양서원
- 윤정일 · 허형 · 이성호 · 이용남 · 박철홍 · 박인우(2002). 신 교육의 이해. 학지사
- 주영흠(2003). 자연주의 교육사상. 학지사
- 정종훈(1999).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에 나타난 신체형성론 연구. 한국체육학회
- 조쟁규(2003). 루소의 교육사상이 체육교육에 주는 의의. 한국체육학회
- 조미혜 · 오수학(2004). 체육교육과정과 평가. 무지개사
- 정호표 · 김병희(2001). 교육사상사. 교육과학사
- 정봉구 역(1996). 에밀. 범우사
- 최의창(2003). 체육교육탐구. 태근
- 최덕묵(2004). 자연주의 철학과 체육교육의 현대적 의의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 홍장표(1996). 구츠무츠의 체육사상이 근대체육에 미친 영향
- 하남길(2002). 움직임 예술과학의 이해. 대한미디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보고서
- Earle F. zeigler(1977).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hilosophy. N.J.: Prentice - Hall.